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 이승만과 개신교의 관계의 변화, 1912~1950*

안 종 철**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미군정·대한민국 초기의 이승만과 개신교 |
| 2. 해방 이전 이승만과 개신교 | 1) 이승만과 한국개신교와의 관계 |
| 1) 미국 망명 후(1912) 이승만과 개신교 | 2) 이승만과 미국 선교사들과의 관계 |
| 2) 태평양전쟁발발 직후 이승만과 개신교 | 4. 맺음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개신교세력과의 관계를 다룬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승만은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개신교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그가 구한말 독립협회활동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12~45년에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도 한국의 운명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제9차 학술회의(2008년 11월 14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 언급된 기독교는 개신교(Protestantism)만을 지칭한다.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HK 연구교수, 한국근·현대사.

과 한국개신교를 동일시했다. 당시 일본의 선전술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때문에 미국의 관심은 한국으로 향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호머 헐버트(Homer H. Hulbert)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억압이 없다면 한국은 기독교국가가 될 수 있다는 논법을 사용했다. 당시 미국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신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논리는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은, 독립 쟁취를 위한 오랜 노력으로부터 얻은 자신의 명망으로 한국인들 사이에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인식되었다. 또 미군정 하에서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의 한국인 지도자들 모두는 한국 개신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은 신탁통치안과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통해 마침내 개신교인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할 무렵, 대부분의 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개신교인들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환영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보답으로 이승만은 새로운 정부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러 가지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중 사망한 선교사·개신교인들에 대해 정부는 국장과 사회장을 베풀었는데 이는 당시의 국가와 개신교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시사적이다. 신생 대한민국의 개신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관계성은 이승만의 집권 시기보다 더 긴 여운을 남겼다.

핵심어 : 이승만, 기독교, 민주주의, 헐버트, 언더우드, 미국선교사

* 이백년 동안을 두고 루터 씨의 개교한 풍조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법·미 등 각국의 정치상 대혁명이 여기서 생겨서 오늘날 구미각국의 동등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거반 여기서 시작한 것이라.(이승만, 『한국교회필박』, p. 85).

* 세상의 절반이 민주주의이고 나머지 반이 전체주의로 있는 한 평화와 안전은 없다.(이승만,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 p. 13)

* 조직화된 종교는 정치를 기독교화하기 보다는 기독교를 정치화시킨다.(Laurens Van der Post)

1. 머리말

이승만(1875~1965)은 자신의 당대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오늘날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평가는 ‘건국의 아버지’나 ‘위대한 민족적 영도자’, 혹은 ‘분단의 원흉’과 ‘민주주의의 파괴자’ 등으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진다.¹⁾ 이승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시대상에 대한 다양한 조명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승만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창이라고 생각되는 개신교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그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개신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통

1) 당대 출간된 이승만에 대한 가장 대조적인 글은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54);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Vermont & Tokyo, Japan: Charles E. Tuttle Company, 1960). 전자는 긍정적, 후자는 비판적이다. 학계에서의 긍정적, 비판적 평가로는 유영익, 「이승만대통령의 업적-거시적 재평가」,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의 제 3장 「이승만 노선과 한국민족주의」를 각각 들 수 있다.

해 “기독교이념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려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²⁾ 이는 구한말 그가 개신교와 관련을 맺으면서 개신교를 통해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독립협회에서 입헌정부 수립활동에 참여하다가 수감되었을 때(1899~1904) 그는 개신교인이 되었고 기독교를 기초로 하는 국가수립을 구상했다.³⁾ 한 평자도 이승만의 행동의 이면에는 “왕족의식”과 더불어 “기독교적인 신념과 교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선민의식”이 있었다고 볼 만큼 기독교가 중요한 요소였다.⁴⁾

이승만의 개신교와 문명에 대한 입장은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독립협회 활동으로 감옥에 있을 때 『신학월보』(감리교 발간)에 기고한 「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1903년 8월)라는 글에서 그는 자신의 이상을 피력했다. 즉 “이 세대에 처하여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것을 숭상하여야 할 터인데, 새것을 행하는 법은 교회로써 근본을 아니 삼고는 그 실상 대익을 얻기 어려운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고로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이후에도 이승만은 줄곧 이러한 생각을 견지했다.

-
- 2)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유영익 편, 『이승만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407쪽; 이 외에도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거시적 재평가」, 유영익 편, 같은 책; 최종고, 「제1공화국과 한국개신교회」, 『동방학지』 46·47·48합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5) 등을 참조.
- 3) 이승만은 서양문물, 특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배재학당에 입학했었고 감옥에 가기 전 기독교를 경원시했었다. 그의 옥중개종에 대해서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400-404쪽 참조.
- 4) 손세일은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이승만의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빚어내었다”고 평가했다. 그의 『이승만과 김구』(일조각, 1970), 16쪽.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로 이승만은 자신의 활동무대를 하와이에서 미국의 워싱턴 D. C.로 옮기면서 한국문제를 국제적으로 상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 시기 반소·반공적인 태도를 명확히 취했다. 이는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의 '민주주의'의 기저에는 기독교가 놓여있었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은 기독교계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에 개신교계와 국가는 독특한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이 시기 개신교계가 위의 세 번째 인용문에서 제기된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이승만의 개신교적 사고와 입장이 식민지 시기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미 당국과의 교섭 전략, 그리고 해방 후 국제사회에 대한 선전전략 등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피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그가 가진 개신교문명에 대한 이해가 '특정한' 형식의 것이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른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 해방 이전 이승만과 개신교

1) 미국 망명 후(1912) 이승만과 개신교

미주에서 전개한 이승만의 한국문제 선전에서 중요한 논거는 대체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⁶⁾ 첫째는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조약상

5) 이 글은 『몽치면 살고-1898~1944 언론인 이승만의 글 모음』(조선일보사, 1995), 148-151쪽에 실려 있다.

6)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는 미국의 한국독립 지원의 근거로 한국의 기독교국가화 가능성,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의 독립과 함께 만주문호의

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야욕에 한국이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미수호조약의 제 1조에 있는 '거중조정(居中調整, good office)'조항에 따라 한국이 제 3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⁷⁾ 그는 이 조약이 한국병합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논거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전개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한국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는 동안 일본이 구미사회에 펼친 선전전의 위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⁸⁾ 그는 일본인들이 동아시아에서 '문명사회'로서의 자신들의 의무를 구미에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서구인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⁹⁾ 그러므로 그는 일본의 통치가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일본의 한국점령의 불법성이라든가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상업적 이해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일본의 기독교 탄압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선교사들의 존재가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키는 중요지점이 되었다.

이러한 이승만의 주장은 자신의 미주에서의 활동경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인 1910년 가을, 그는 한국

개방, 일본의 식민통치의 억압성 등을 들었다. 이는 구미위원부가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355쪽.

7) 위의 책, 352-359쪽.

8) 일본의 서구사회에서의 선전활동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과 비판은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etc: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pp. 159-164(이 책은 박마리아 역, 『日本内幕記』 (1954, 자유당선전부)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9) 일본의 구미사회에 대한 선전활동에 대해 잘 정리된 글로는 안드레 슈미트 (Andre Schmidt), 「식민지 시기 일본의 미국 내 선전활동」,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2006) 참조.

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청년회(YMCA)의 학감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통제하기 위해 일제 당국은 1911년 테라우치총독암살미수사건('105인 사건')을 꾸며냈다. 이 사건의 발발로 YMCA 총무였던 윤치호와 학감 이승만은 나란히 일제의 감시대상이 되었다.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감리교 연차총회를 빌미로 이듬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간 후 주로 하와이에 머물면서 1939년까지 3·1운동 전후를 제외하고 한인교회와 한인중앙학원 등을 운영하는 데 집중했다.¹⁰⁾ 그에게 있어서 한인교육과 기독교의 활동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와이에서 '105인 사건' 관련 저서를 출간하면서 일제의 한국지배의 문제를 기독교 억압이라는 차원에서 제기했다. 이 책에서 그는 개신교세력이 한국에 "예수교 문명"과 "혁명사상"을 만들고 미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탄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¹¹⁾

3·1운동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활동무대를 워싱턴 D. C.로 옮겨서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했다. 구미위원부도 일제의 한국 독립만세운동 탄압은 기독교 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¹²⁾ 구미위원부와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되어 1919

- 10) 최영호, 「이승만의 하와이에서의 초기활동-교육사업과 1915년 대한인국민회 사건」,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이덕희, 『한인기독교회·한인기독교학원·대한인동지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8), 239-294쪽.
- 11) 李承晩, 『한국교회 필박』(美領夏哇伊: 新韓國報社, 1913)(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설 현대한국학연구소 우남이승만전집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 동문편』 제 2권(중앙일보사·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391-523에 재수록), 13, 25-26, 81쪽(원문 쪽수) 등 참조. 이 책에 표현된 이승만의 기독교국가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덕주, 「이승만의 기독교신앙과 국가건설론-기독교개종 후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제30호, 73-79쪽 참조.
- 12)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Chairman, Korean Commission (구미위원부) to Robert Lansing(국무장관), 1919년 8월 28일, 895.00/655. RG 59.

년 5월 16일에 결성된 한국친우회는 미국의 교회들과 접촉해서 개별 교회들로 하여금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는 편지를 미 국무부에 발송하기도 했다.¹³⁾ 이승만도 3·1운동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 예를 들면 3·1운동 당시 일제가 도발한 사건들 중 수원지역 제암리 학살사건은 일제가 29명의 성인남녀를 교회로 집결시킨 후 이들을 사살한 후 교회에 방화를 한 잔인한 사건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기독교 탄압으로 그려내었다.¹⁴⁾ 실제로 당시 제암리사건 때 희생자 중 청도교인들도 상당수(17명) 있었다.

구미위원부는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미주에서의 3·1운동”에 해당하는 ‘제 1차 한인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 대내적인 명칭은 ‘대한인총대표회의’)’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해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미국 조야에 알렸다.¹⁵⁾ 이 회의에는 연사로 개신교 목사(Floyd W. Tomkins, Crosswell McBee, Clarence E. McCartney), 선교사(Mrs. E. L. Cook, Mr. Deming), 천주교 신부(James J. Dean), 유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NARA, Washington D. C., 1962 (이하 *Internal Affairs of Korea*).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가 들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안종철, 「3·1운동, 선교사 그리고 미일간의 교섭과 타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집(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70-71쪽 참조.

- 13) 이 시기 개별 교회에서 국무부에 직접 서신을 발송한 경우를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들은 The M. E. Church of Elburn Illinois to State Department, 1919년 5월 12일, 895.00/ 618; John Henry Hopkins, the Federation of Episcopal Church of the Redeemer Hyde Park, Chicago to the State Department, 1919년 5월 14일, 895.00/620. *Internal Affairs, 1910-1929*. 3·1운동 직후에 한국친우회의 활동은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363-371쪽.
- 14)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78-79. 제암리사건은 「수원군 총리원 연혁」, 『천도교회월보』 1926년 11월, 30쪽;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참조.
- 15) 이 회의의 참석인물들과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325-333쪽 참조.

대교 성직자(Henry Berkowitz) 등 수많은 종교인들이 참여했다. 이 집회는 기도와 연설로 시작되었고 한국독립의 필요성은 줄곧 기독교 문제와 연결되어 언급되었다. 서재필은 개회연설에서 “미국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 파견했는데.... 이들의 복음전도 노력은 병원·학교의 건설과 과학·예술·음악의 가르침과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정신을 함께 수반”했다고 주장했다.¹⁶⁾ 직후에 등단한 톰킨스 목사는 “여러분의 나라처럼 선교사의 호소에 그렇게 신속하고 것처럼 강하게 응답해 왔던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지구상의 기독교 국가들 중 그 존재가 뚜렷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¹⁷⁾

이 회의에서 통과된 <미국에의 호소문>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군사적 독재로부터의 자유이며, 우리의 투쟁 목표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 신앙을 널리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독교와 한국독립의 문제를 연결시켰다.¹⁸⁾ 이는 이승만·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의 독립문제와 기독교 국가의 수립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¹⁹⁾와 S. A. 벡(S. A. Beck)은 구미위원부의 ‘선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16) *Proceedings of the First Korean Congress* (Philadelphia, 1919), p. 4, 고정휴, 위의 책, 327쪽에서 재인용.

17) Ibid., p. 5, 고정휴, 위의 책, 328쪽에서 재인용.

18) Ibid., pp. 29-30, 고정휴, 위의 책 331쪽에서 재인용.

19) 헐버트는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한국에 부임해서 서울사범학교 교장, *The Korea Review*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다가 고종의 부탁을 받고 1907년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다. 후일 미국에 돌아가서 목사, 저술가, 연설가로 활동했다.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참석 차 한국에 들어온 후 8월 5일 사망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Clarence N. Weems Jr., “Profile of Homer Bezaleel Hulbert,” *Hulbert's History of Korea* (New York: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참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들의 강연내용도 일본의 한국지배의 야만성을 일제의 억압적인 개신교 정책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들과 함께 한 연설회에서 “우리 한국인은 미국의 그것과 동일한 원칙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제 원칙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건립을 위하여 미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일본은 그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주는 물론 아시아 전역의 문호개방에 찬성합니다.”라고 주장했다.²⁰⁾ 이승만은 개신교와 더불어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에 호소했다. 이때만 해도 **개신교문명론**이 선전의 주안점 중 하나였다.

2) 태평양전쟁발발 직후 이승만과 개신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H. H.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1890-1951)를 포함해서 당시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서 활동한 상당수의 원로 선교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은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이승만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초청으로 1942년 9월 22일 워싱턴에 와서 한국을 돕는 방안을 이들과 상의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 중 한명인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의 딸이자 이화여전 교장을 역임한 앨리스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1885-1950)도 함께했다.²¹⁾

20) “Korean Meeting at the Boston University,” Korea Review, I-12(1920.2), 고정휴, 위의 책, 354쪽에서 재인용.

21) October 17, 1942, “Dr. O. R. Avison’s Activities in Regard to Korea”에 첨부된 10월 5일 자 에비슨의 편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국가보훈처, 2005), p. 351. 앨리스와 에비슨의 만남은 에비슨의 부친과 이승만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서 이승만 측이 만나도록 주선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애비슨과 헐버트는 이승만과 구미위원부의 지원 하에 '기독교인친한회(Christian Friends of Korea)'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원로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²²⁾

조직의 결성 목적은 미국 정부가 이승만과 임정을 지원하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애비슨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인의 독립운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³⁾ 애비슨과 이승만의 관계는 1894년 이승만이 배재학교에 입학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비슨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구한말부터 이승만의 개혁구상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²⁴⁾ 이 점은 헐버트도 마찬가지인데 헐버트는 구한말 배재학교에 위치한 삼문출판사에서 『한국평론(The Korea Review)』을 출간할 때부터 이승만을 알고 있었다. 애비슨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이승만을 지지해야 할 이유로 한국독립 문제와 선교활동의 연관성을 들었다. 즉 한국이 독립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에 “직접적 선교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⁵⁾ 이는 만약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 독립이 성취된다면 한국 내 선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구한말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에 크게 공감했던 헐버트도 1942년 3월

22) 이 단체 결성을 위해 약 600여 통의 편지가 발송되었다. June 5, 1943, FBI Director (John E. Hoover) to George V. Strong (G-2, War Department), "Memorandum for Colonel Martin," Ibid., p. 347.

23) 물론 해방 후 한국 거주 2천 4백만 한국인들이 대표문제에 관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는 달았다. June 5, 1943, FBI Director (John E. Hoover) to George V. Strong (G-2, War Department), "Dr. O. R. Avison's Plans for Working with the Koreans," Ibid., pp. 345-346.

24) October 17, 1942, "Dr. O. R. Avison's Activities in Regard to Korea"에 첨부된 10월 5일 자 애비슨의 편지. Ibid., pp. 352-353.

25) Ibid., p. 352.

1일 이승만, 서재필과 함께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Korea Victory Congress)’에 참여했다.²⁶⁾ 헐버트는 기독교인 친한회 활동과 더불어 이승만의 사설고문단(Kitchen Cabinet) 역할을 한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의 전국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헐버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의 인맥은 중첩되었다.²⁷⁾ 헐버트의 한미협회 위원으로서의 선전활동은 두 가지에 집중되었는데 첫째, 일제 한국통치의 잔혹성은 “기본적인 정의와 기회의 박탈”이라는 것과 둘째, 한국인들은 세계에 기여할 “무한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다.²⁸⁾

그런데 헐버트의 한국에 대한 선전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독교인친한회의 위원으로서의 선전활동에 드러나 있는 개신교 문제였다. 이는 이승만과 헐버트, 애비슨의 인식의 공통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문명’에 대한 인식이다.²⁹⁾ 그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내 곳곳에서 자주 개최된 한국관련회의(Korean Conference)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그가 참여한 한 회의가 폐막된 후 ‘기독교인친한회’ 인사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의 일단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기독교 교회의 희망(ambition)은 한국이 극동 전체에 기독교문명의 찬란한(radiating) 중심지가 되는 것이어야

26) Ibid. p. 58. 헐버트는 워싱턴회의(1921-22)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1921년 3월 1일 개최된 상해임정 구미위원부 주최의 한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01쪽.

27) 한미협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기독교인친한회’는 미 개신교계에 대한 친한 여론 조성작업 등을 담당했다. 고정휴, 위의 책, 428-432쪽.

28) Clarence N. Weems Jr., "Profile of Homer Bezaleel Hulbert," p. 61.

29) 헐버트의 반일논리와 기독교문명화 논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안드레 슈미드,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전: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No. 12 (역사비평사, 2004) 참조.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친한회는 자유롭고 독립된 한국을 지지합니다(강조: 필자).³⁰⁾

헐버트는 기독교문명의 근거로 당시 “한국의 50만에 가까운 교회 [구성원들]의 성장, 350여 개의 개신교계 학교들의 설립, 천여 명의 개신교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훈련, 그리고 한 민족(nation)을 확실히 변화시킬 강력한 영향력의 전개”를 들었다.³¹⁾ 이로부터 서울지역의 원로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로 지지했다. 그 공감대는 바로 ‘개신교 국가’ 혹은 ‘개신교 문명’의 수립이었다.

이승만도 이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졌다. 이승만이 미국 내에서 저명한 인사가 된 중요한 계기는 태평양전쟁 직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 때문이었는데 이 저서에서 그는 일본의 호전적인 국민성을 비판하면서 조만간 일본의 미국침략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도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억압은 민족에 대한 탄압과 함께 개신교 탄압, 특히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억압과 추방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³²⁾ 다음에서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한 짓은 중국에서 개신교인들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 현지의 개신교인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30) Homer B. Hulbert to 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 “Dear Friends,” March 16, 1944, 독립기념관 소장 Homer B. Hulbert File.

31) Ibid.

32) 당시 미 여론의 동향상 이승만은 주로 중국 내 미국 선교회 운영 학교와 병원 등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문제를 연이어 제기하는 형식의 논법을 구사했다.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pp. 63-83.

아니다. 선교사들도 곧 고통을 받을 것이다.....수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아니며 본국에 있는 이들만 미국인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어디에 있거나 미국인들이다.³³⁾

한국에서 그러했듯이 중일전쟁 발발(1937) 후 일제는 중국에서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선교사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것이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한국에서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시기 그의 주장은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이전의 구미위원부의 대미선전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을 태평양전쟁 동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전후 한국문제를 독일, 이태리, 일본의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와 대결해야 할 '민주주의' 구축의 문제로 인식했다.³⁴⁾ 이승만의 개신교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였으므로 개신교는 전쟁시기의 파시즘 체제와 해방 후 공산주의를 대적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원의 논리가 되었다. 즉 이전의 독립과 문명 그리고 그 핵심으로서 기독교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1940년대에는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민주주의로 그의 선전의 강조점이 옮겨갔던 것이다.

33) Ibid., pp. 79-81.

34) 이승만은 아시아에서의 일본 침략의 시작의 기점을 항상 한국으로 설정했다. Ibid., pp. 195-196.

3. 미군정 · 대한민국 초기의 이승만과 개신교

1) 이승만과 한국개신교와의 관계

해방직전 일제 당국은 개신교계의 각 교단의 통합을 추진해서 패망을 보름 앞 둔 1945년 8월 1일에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 탄생했다. 함흥에서 활동했던 김관식 목사가 통리(統理)로 추대되었고 송창근, 김영수(장로교 측), 김인영, 박연서, 심명섭(감리교) 등이 핵심인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해방 직후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귀국하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명분으로 조선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³⁵⁾ 그리하여 우선 새문안교회에서 9월 8일 제1차 ‘조선기독교 남부대회’가 개최되었다. ‘남부대회’는 북한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었다. 그러나 감리교파에서 보듯이 이 대회 참여인사들은 각 교파로 다시 회귀하고자 했고 장로교 측도 마찬가지였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에 미군정 측의 도움으로 귀국했는데 이는 다른 중경 임정인사들에 비해 앞선 것이었다. 그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사였지만 국내에 확고한 조직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기본 조직으로 하면서 지지 세력의 외연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기독교 측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었다. 그는 신문기자단과의 정례회견장에서 “한마디 부탁할 것은 유교 불교 등의 종교단체가 활발히 움직이는데 기독교들만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알 수 없다. 3·1운동 당시보다도 더 활발한 움직임이 있기를 바

35)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1), pp. 236-237.

36) Ibid., p. 237;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49-50쪽.

란다.”³⁷⁾라고 할 정도로 개신교 측의 분발을 촉구했다. 당시 남한에서 군정통치를 하면서 신뢰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도 미국 유학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신교 측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 후 김구와 김규식 등도 속속 개인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신교 측은 ‘전조선 기독교대회’(제 2차 조선기독교 남부대회)를 개최하면서 1945년 11월 28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정부 요인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는 언급한대로 남부대회 주최 측이 “장래 건국의 주도권을 가질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등이 모두 기독교신자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건국이념을 제공하며, 그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³⁸⁾ 이 점에서 위의 3인을 중심으로 하는 임정인사들은 개신교 측의 열렬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애초부터 매우 높았다. 이 회의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은 하나같이 개신교를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초로 삼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들 주장의 핵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 서로 잘 살자(김구).

이제 우리는 신 국가 건설을 할 터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이승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책임은 교회에 있다(김규식).³⁹⁾

37) 「이승만, 임정 환국과 독촉 지방조직 등에 관해 언급」, 『자유신문』 1945년 11월 20일.

38)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50쪽.

39) 김유연, 「임시정부 영수들의 주신 말씀」, 『활천』 229호(중간호)(1946. 1), 3-5쪽, 강인철, 「대한민국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2008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교회』, 68-7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신교 정치지도자들의 의도와 주문에 답하듯이 같은 해 12월 20일 자로 ‘조선독립축성 종교단체연합대회’가 천도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김구, 하지(대리),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등의 참석 하에 개신교계의 김관식이 회장으로 김법린(불교), 김교준(대종교), 오상준(천도교), 이재억(유교), 남상철(천주교) 등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⁴⁰⁾ 김관식은 남부대회를 주관할 만큼 개신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개신교 측이 이 대회를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이 조직결성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대회성격에서 보듯이 신탁통치에 반대한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통치 반대에 미온적이었던 김규식에 비해 개신교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개신교회의 주도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공전(空轉)되고 있는 상황인 1947년 7월에 종로 YMCA회관에서 ‘전조선기독교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는 이승만, 김구 등을 비롯하여 함태영(의장), 남상철(부의장) 등을 주축으로 2천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참여했다. 이 집회에서 미소공위에 보내는 반탁결의 메시지와 월남 개신교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다루어졌다.⁴¹⁾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 김구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김규식에 비해 개신교계 내에서 확고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김규식은 중도 우파적 인사로 1946년 3월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기청)의 초대 회장이 되었지만 이후 미소공동위원회 참여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사실상 기청에서 추방되었다.⁴²⁾

40) 『조선독립축성 종교단체연합대회』,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41) 「전국기독교도대회 개최」, 『동아일보』 1947년 7월 11일.

42)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213-214쪽.

남한 단정이 사실상 결정되었던 1947년 후반부터는 남북협상을 주장한 김구에 비해 이승만이 개신교 측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국을 주도했다. 그는 임시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5월 31일 국회개원을 선포했다. 제 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식순에도 없는 순서로 이윤영 의원(서울 종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³⁾

조선기독교남부대회의 간부들이 주도해서 1946년 9월에 창립한 ‘조선기독교연합회’(KNCC)는 1948년 7월 17일 헌법공포일에 정동제일교회에서 강태희 회장의 사회로 국회의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과 서울시내 주요 교회 대표들이 참석해서 이들의 취임을 축하한 것도 개신교계와 신생 정부, 특히 이승만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⁴⁴⁾ 동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에 이승만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더 결심”한다고 맹세하기도 했다.⁴⁵⁾ 당시 이승만이 주도한 국가의례의 기독교화를 당시 비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적극 반대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의식을 전국을 기원하는 단순한 상징으로 받아들였거나 재정원조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미친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⁴⁶⁾

이승만은 집권 직후인 1949년 초에 일민주의라는 자신의 전국정신을 밝혔다. 이승만의 저서를 보급하는데 앞장 선 일민주의 보급회에

43)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416-417쪽.

44) 「국회의원 환영회」, 『조선감리회보』 12/7, 1948년 7월 20일.

45)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416쪽.

46) 이외에도 주지하듯이 한국전쟁 전후로 형목제도, 군종제도, 성탄절의 공휴일화, 공영방송을 통한 개신교 선교 등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5~6장.

는 당시 이범석이 명예회장으로, 고문에는 당시 정부 관료로 활동한 인사들인 김호석, 안호상, 윤보선, 정인보, 윤치영, 이철원, 이기붕, 배은희 등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이범석, 안호상, 정인보 등 대종교계의 인사들이 이 회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보선, 윤치영, 이기붕, 배은희 등 개신교계 인사들도 참여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⁴⁷⁾ 이들 모두는 반공이념에 철저한 인사들이었다.

일민주의의 네 가지 핵심은 “문벌타파”, “빈부동등”, “남녀동등”, “지방구별 삭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건국강령에 해당하는 일민주의의 첫째는 개신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⁴⁸⁾ 이 중 첫 번째 표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등으로 창조했다는 그 사상을 토대 삼어(원문 그대로) 민주정체를 건설한 기본적 정강이므로 이 기본적 주의를 우리가 흡수해야만 관연 우리 민주주의의 만년기초가 확고히 잡힐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⁴⁹⁾ 즉 이는 개신교가 민주정체의 근본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구한 말부터 이승만이 일관되게 지녀온 신념의 표현이다. 한편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서 “현재 생존의 위기를 당하지 않은 나라나 민족이 없는 터이니 이 이유는 즉 공산당문제”라고 초점을 반공에 맞추었다.⁵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개신교인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었다. 1949년 6월 23일에 개최된 개신교계의 서울운동장 집회는 건국 후 북한에 대해 가졌던 이승만과 개신교인들의 입장을 압축해서 잘 보여준다. 어쩌면 이 집회야말로 이승만이 귀국 후 기자들에게 언급한 바, 개신교계의 3·1운동과 같

47) 보급회 임원 명단은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일민주의 보급회, 1949), 54쪽.

48) 「일민주의 정신과 민족운동」, 『경향신문』 1949년 4월 22일. 일민주의와 개신교와의 관련은 강인철, 「대한민국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91-92쪽 참조.

49) 이승만, 『일민주의개술』, 18쪽.

50) 위의 책, 11쪽.

은 열기를 주문한 것을 실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집회에서 개신교 측은 “38선의 책임자는 38선을 철폐하라. 유엔은 남북통일을 조속 실현하라.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협력하라. 미군은 철퇴 이전에 한국의 안전보장책을 확립하라. 한국의 침해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기독교도는 뭉치라, 일어나라, 나라를 구하자. 동포여 깨어라, 일치단결 국난에 당(當)하라.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여 국난을 타개하라”라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했다.⁵¹⁾ 이 집회의 주된 목적은 동년 6월 말로 예정된 미군 철수를 막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한국 언론은 이 집회에 참석한 인물들이 10만이라고 보았지만 미 대사관 측은 1만 5천 정도로 보았다.⁵²⁾ 참석자들의 면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집회는 개신교 측과 이승만 정부의 합작품임을 알 수 있다. 대회장은 남궁 혁(전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연설자들로 노기남(가톨릭 주교), 김유순(감리교 주교), 이근(목사), 황금천(월남 목사), 이윤영(사회부장관), 이종현(농림부장관), 이기봉(서울시장), 이종선(국회의장 대리), 도널드 맥도날드(Donald S. McDonald, 미 대사관 대리) 등이 참석했다.⁵³⁾ 맥도날드 서기관은 이 집회에서 미국은 한국 개신교인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⁵⁴⁾ 이러한 관민합동 집회는 이승만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51) 「십만기독교도가 쫓겨-열성의 방위(防衛)대회」, 『동아일보』 1949년 6월 24일.

52) Everett F. Drumright (Counselor of Embassy) to the Secretary of State, “Mass Meeting of Korean Christians,” 1949년 6월 29일, 895.404/6-2949,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p. 1.

53) Ibid., p. 2.

54) 「십만기독교도가 쫓겨-열성의 방위(防衛)대회」, 『동아일보』 1949년 6월 24일

2) 이승만과 미국 선교사들과의 관계

선교사들은 대체로 신생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인 인식과 함께 이전부터 지녀왔던 반공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다. 또 신생 독립국에서 선교활동에 대한 자유문제도 중요했다.⁵⁵⁾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대표적인 인사들은 미군정에 적극 참여한 연회전문 관련 인사들일 것이다. 그 중에 1930년대 동교의 교수와 교장을 역임한 H. H. 언더우드⁵⁶⁾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는 미군정 내에서 문교부 부장(장관)과 군정장관의 자문관으로 활동했고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이 지원한 대한민국의 탄생을 우호적으로 보았다.

1948년 유엔위원단은 4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를 감독했습니다. 선출된 정부는 절대로 “꼭두각시 정부”라든가 미국에 의해 “세워진(set up)”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그 구성원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선거에서 자유롭게 선출되었습니다.⁵⁷⁾

언더우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료 여행객들만이 대한

55) 선교사들의 미군정 내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안종철, 「미군정 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제 30호 참조.

56) H. H. 언더우드의 군정기 활동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39-243, 255-259쪽 참조.

57) Horace H. Underwood(with a concluding chapter by Marion E. Hartness), *Tragedy and Faith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p. 12.

민국 정부의 수반 이승만을 “전제군주”로 보고, 한국을 “경찰국가의 압제 하”에 있다고 “열렬히” 선전하고 있었다.⁵⁸⁾ 그에게 있어서 1949년 3월, 부인(Ethel V. W. Underwood)의 암살은 곳곳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communist agents)”의 소행 중 하나였다.⁵⁹⁾ 그는 한국 정부의 발표, 즉 암살범들이 원래 다른 사람(모윤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언더우드 부인의 사망은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철저하게 믿었다.

그는 북한을 소련의 지령을 받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로 보았기에 이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소련이 전쟁발발의 궁극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았다. 언더우드도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은 ‘민주주의’로 보았고 개신교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였다. 그러므로 그는 공산주의와의 전쟁과 전후재건에 있어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승리만이 아니라 “영적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⁶⁰⁾

그의 친우로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와 도서관장으로 활동했던 남감리교 선교사 피셔(J. Ernest Fisher)의 견해도 언더우드의 것과 유사했다.⁶¹⁾ 그도 해방 후인 1946년 초에 다시 입국

58) Ibid., p. 13.

59) Ibid: “Dear Friends of Ethel’s,” March 17, 1949. Horace G. Underwood Papers(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관). March 17, 1949, Box 6-Folder 39

60) Ibid., p. 42. 그의 민주주의 확보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ung H. Pak, “ ‘Not by Power nor by Migh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piritual Wars in Korea, 1885-1953,” Columbi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6, pp. 175-176.

61) 언더우드와 피셔는 1926년, 1928년에 각각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학위논문은 책을 책으로 출간했다. Horace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James E. Fisher,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 두 책 모두 해방 후 미군정내부의 필독도서였다.

해서 미 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의 책임자로 일했다. 미군 정기에 한국인들의 인선과 ‘민주주의’교육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미국식 시민적 자유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보면서 그 대척점에 ‘전체주의’가 서 있다고 보았다.⁶²⁾ 당대의 ‘전체주의’는 물론 공산주의였다. 피셔도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⁶³⁾ 그러므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언더우드, 피셔 모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개신교를 지적했다.

그도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을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인물로 보았다. 그에게 이승만의 선출은 “국민 대다수의 선택”이었다.⁶⁴⁾ 그는 한국전쟁 직전까지는 이승만이 반대자들을 탄압한 행위조차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즉 이승만이 반대파들을 검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만약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경너머 “[미국으로] 간첩들을 보낸다면” 미국에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할 정도로 이승만의 초기 정치체제의 억압적인 면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⁶⁵⁾

62) 피셔 민주주의론의 핵심은 사회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다양한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켄 · 어네스트 피셔, 『민주주의적 생활』 (남조선과도림시정부 여론국, 1947), 1-4쪽.

63) 위의 책, 54쪽. 물론 피셔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일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64) J. E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pp. 218-219.

65) Ibid., pp. 220-221. 그는 1914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신흥우와 식민지 시기 오랜 동안 함께 일한 경험이 있었다. 신흥우의 어학실력과 일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한 피셔는 신흥우가 초대 주미대사가 아닌 주일대표부를 맡게 된 것에 실망했다. Ibid., 83-92. 또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경에서 대북 심리전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이승만에 반대했던 홍사단 인사들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후일 이승만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Ibid., pp. 225-227. 그러나 그가 대한민국의 탄생을 환영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언더우드나 피셔 등은 미군정에서 일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나 좌우 합작 등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수립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수립에 대한 환영은 개신교계 사립학교 출신으로 미군정과 새로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백낙준, 최순주, 정일형, 조병옥, 이묘목, 김활란, 임영신, 박인덕 등 한국인 엘리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한편 미군정에 참여한 선교사들 중에서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미 국무부 파견 미군정 경제고문팀의 단장을 역임한 아더 번스(Arthur C. Bunce, 1901-1953)이다.⁶⁶⁾ 그는 미국에 의한 대한원조안과 토지개혁 등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그것만이 북한의 선전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철저한 개혁만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으므로 대한민국의 수립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려고 했다.⁶⁷⁾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 미국 개신교 교파들은 서신을 통해 정부수립을 환영했다. 미국 감리교 총회는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해지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남한에 국회의원과 정부가 수립될 것이 확실해진 즈음에 조선독립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안에 대한 미 교단 차원에서의 지지성명이었다. 이 결의문에서 감리회 측은 “우리는 유엔 조선위원의 결의를 완전히 지지하며 조선국민의 자유를 무리하게도 완폐하려고(원문 그대로: 필

66) 번스의 활동과 개혁안에 대해서는 안종철, 「미국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266-274쪽 참조.

67) 번스 이외에 미군정과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소유한 인물로 조지 맥쿤(1908~1948)도 주목된다. 안종철, 위의 논문, 274-282쪽 참조.

자) 조직된 국제공산당의 암약을 막으려 하는 조선국민 절대다수를 포용한 민주적 우익제당의 영웅적 노력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⁶⁸⁾ 미 북장로교 측도 해외선교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서한을 한국선교부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⁶⁹⁾ 미 기독교 교단차원의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지지는 신생국의 입지를 강화했음에 틀림없다.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 내 개신교 선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밝히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승만은 미국 오하이오(Ohio)주에서 개최된 미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의에 보낸 전문에서 이를 명확히 표현했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본인은 [오하이오] 콜럼부스(Columbus)의 해외선교회 연합회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60여전 전에 시작된 개신교 선교부는 [조선교회의] 영적 힘의 근원을 매우 강력히 조직해주어서 지난 40년 동안의 박해 동안, 특히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에서 보듯이, 교회가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력은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삶 도처에서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심지어 비기독교인 들도 일찍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을 보내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발달의 영역에서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68) 이것은 *Daily Christian Advocate*, 3/8, 1948년 5월 6일에 실렸다. 「미국감리회의 조선독립에 대한 결의문 『조선감리회보』 12/6, 1948년 6월 20일.

69)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Greetings to President Syngman Rhe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 Department of History, Philadelphia, PA(이하 PCUSA), p. 1.

이 우리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진행하는데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⁷⁰⁾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어서 그는 미래의 개신교와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켰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지난 40년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사라지 다시피해서(black out) 심지어 [한국의]고통 받는 이들에게 박애주의적이며 인도적인 도움조차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 연료, 의료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건너 있는 기독교 국가(Christian lands)의 친우들의 자애로운 마음에 호소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 간의 경제적 분단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련의 훈련을 받은 붉은 군대(Red Army)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위협합니다.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국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하고 있고 영적·지적인 작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⁷¹⁾

이승만은 미국의 인도적 도움을 구하면서 공산주의의 남한에 대한 도전을 기독교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했다. 이때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이다.

이승만은 국제적 여론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가 반민특위특별조사위원들이 반민족행위자들을 체포, 심문하는 권한을 비판한 것

70)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President Syngman Rhee's Message to the Korean Missions Conferenc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p. 1.

71) Ibid.

은 일차적으로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계산한 것이었지만 미국의 여론도 중요한 변수였다.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 그는 1949년 4월에 불편한 심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조사위원들이 평민을 고용하여 특경대를 만들어 사람을 자유로 잡아 가두게 된 것이니 이것이 다 위법한 행동이다....또 워싱턴에서 온 보고를 듣건대 감리교 웰키씨가 장면대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 양주삼 목사를 반민법에 걸어 수감했다는 것이요 이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단히 격분해서 국제문제를 삼기에 이르렀으니 나는 양주삼씨가 수감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이다. 지각없는 사람들이 내외대세를 모르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국제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은 많은 유감을 면할 수 없는 바이다.(강조: 필자)⁷²⁾

즉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양주삼 감리교 총리사(1934~1938)⁷³⁾와 같은 거물급 개신교인이 관련된 사실이 ‘국제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에 비해 이승만은 개신교 관련 인사들의 사망, 예를 들면 언더우드 부인의 암살(1949년 3월, 연희대학교장), 외무부와 공보처의 고문으로 활약한 윤병구의 사망(1949년 6월, 정부장), 헐버트의 한국방문과 장례(1949년 8월, 국장),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구아기였던, 엘

72) 「이승만대통령,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활동에만 국한하고 특경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 『서울신문』 1949년 4월 1일. 강인철도 반민특위 피의자 중 개신교계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고 반민특위활동의 무력화는 교회의 생존과 위상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인철, 「대한민국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105-106쪽.

73) 종교(琮橋)교회의 목사로 윤치호와 절친했다. 1939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의원이 되었다.

리스 아펜젤러의 '순교'와 같은 이화여대 예배인도 도중의 사망(1950년 2월 20일, 사회장) 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사들의 장례를 국가 혹은 사회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대한민국이 선교사들과 개신교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정권임을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1949년 3월 17일 '좌익계' 청년들에 의해 희생된 언더우드 부인의 장례식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활동했던 새문안교회에서 미군관계자, 교육구호사업 단체, 연희대학교 관련 인사들(백낙준, 최순주)이 주로 모여서 3월 22일 연희대학교 학교장으로 진행되었다.⁷⁴⁾ 그러나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승만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직접 “심심(甚深)한 조의(弔意)”를 표했다.⁷⁵⁾

하와이 감리교회의 목사로 이승만과 함께 구한말 한인대표로 활동한 윤병구의 급사(急死)에 대해 이승만은 조사(弔辭)를 통해 그의 하와이에서의 활동상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일제의 보호조약 체결 전야에 자신과 윤병구가 서울의 고위층(민영환, 한규설)과 미주 한인들의 대표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났던 것, 그리고 미국무부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려고 했던 것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⁷⁶⁾ 역사적 설명에 가까운 그의 조사는 윤병구에 대한 애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윤병구의 장례도 새문안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장의위원장에 임병직(외무부장관), 부위원장에 이철원(공보처장)이 임명되었다.⁷⁷⁾

74) 「애끓는 各界弔辭 故元漢慶夫人葬儀嚴修」, 『동아일보』 1949년 3월 23일.

75) 「深甚한 弔意 李大統領談」, 『동아일보』 1949년 3월 20일. 정부는 장례를 사회장이나 국장수준을 제시했지만 남편인 언더우드는 사건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를 거부했던 것 같다. Jung H. Pak, “Not by Power nor by Might,” p. 173.

76) 「이승만 대통령, 윤병구 장례식에 조사」, 『서울신문』 1949년 6월 25일.

77) 「윤병구 외무부·공보처 고문 사망」, 『서울신문』 1949년 6월 22일.

헐버트는 잘 알려져 있듯이 1949년 7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곧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8월 5일에 사망했다. 8월 2일에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은 직접 헐버트가 입원해 있는 청량리 위생병원을 찾았다. 언론에는 “대통령께서는 하루바삐 건강이 회복되어 전 민족의 환영을 받아 달라고 헐버트 박사를 격려하고 특히 주치의 피어슨 박사에게 헐버트 박사는 한국의 최대한 은인이니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 보도되었다.⁷⁸⁾ 그리고 곧 이어 헐버트의 사망 소식과 한국에 대한 그의 열정이 자세히 소개되었다.⁷⁹⁾ 동년 8월 11일에 부민관(府民館)에서 국장으로 개최된 그의 장례식에 서 이승만은 “헐버트 박사는 미국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과 평생 행동은 일편단심 조선에 맺혀 있었던 것이며, 미국에서 태어난 분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것이다.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 노력하던 박사가 그리워하던 제2의 고국에 들어와서 친히 우리와 애기하고 독립된 나라를 골고루 보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우리는 헐버트 박사의 유지를 따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싸울 것이며, 박사의 위업을 사모해서 동상·비석 등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요지로 조사를 했다.⁸⁰⁾

1950년 2월 아펜젤러의 사망에 대해서도 이승만은 앨리스의 아버지와 자신의 독립협회 당시의 인연을 들어서 긴 조사를 발표했다. 이승만은 아펜젤러 부녀의 활동에 대해 “선교사들이 신성한 종교를 전도함이 그 직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우리나라 민주제도의 정신은 선교사측으로부터 먼저 그 역사와 의도를 알게 된 것이요 거

78)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헐버트 박사를 문병」, 『경향신문』 1949년 8월 5일.

79) 「헐버트 박사 서거」, 『경향신문』 1949년 8월 7일.

80) 「헐버트박사 영결식 거행」, 『자유신문』 1949년 8월 12일.

기에서 흡수한 민주주의 요소가 우리의 골수에 백여서 구한국 시대나 왜정시대에 뼈 속에 잠정적으로 자란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선교사들에게 양방으로 빗을 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⁸¹⁾ 아펜젤러의 장례식은 종로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사회장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장은 양주삼, 부위원장에 채부인, 김활란이 임명되었다.⁸²⁾

이러한 일련의 장례식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정부 관료들의 참여와 주도는 당연히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개신교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은 1949년 11월 한국을 둘러보러 온 미 감리교 선교본부 총무 브럼보(T. T. Brumbaugh)를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모든 희망을 기독교운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에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운동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답변했다.⁸³⁾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직후부터 시작된 선교사들에 대한 정부 측의 우호적인 정책은 훈장수여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⁸⁴⁾ 대한민국 정부는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으로 하여금 1950년 3월 1일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사랑의 노고로 바친 헌신적인 섬김”에 대해 10명의 미국인들에게 태극훈장을 수여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송실전문학 교에서 3·1 만세운동 때 시위관련 학생들을 숨겨주었던 엘리 모우리

81) 「李大統領 偉勳을 欽慕 아女史 別世에 弔意」, 『동아일보』 1950년 2월 24일.

82) 「아 女史 社會葬」, 『동아일보』 1950년 2월 23일.

83)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Vol. II. 1935-1959 (Seoul, Korea: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65), p. 386.

84)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pp. 385-388.

(Eli M. Mowry)였다.⁸⁵⁾ 한국전쟁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각 단체로부터 훈장을 받았다.⁸⁶⁾

한국전쟁 시에도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미 감리교 총회에 서신을 보내어 미국 개신교계의 한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⁸⁷⁾ 그 예로 한국전쟁 중에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한국책임자인 헨리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1889-1953)⁸⁸⁾와 미국의 『기독교세기(Christian Century)』 기자가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정신과 기도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해준다. 기독교는 특히 현재와 같은 고통의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준다. 우리가 서울을 떠나야 했을 때 아무 곳에도 한줄기 빛이 없었지만, 기도는 우리를 떠받치는 힘이였다.”라고 기독교와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했다.⁸⁹⁾

이승만이 모든 개신교단체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기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의 공산권교회와의 관련성을 ‘용공’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황성수 등 개신교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22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교계

85) Ibid., p. 382.

86) 에비슨(O. R. Avison: 1954, 독립훈장), 스탠튼 윌슨(Stanton R. Wilson: 1956, 안동군 교육상), 윌슨(R. M. Wilson: 1958, 독립훈장), 뵐켈 부인(Mrs. Harold Voelkel: 1957, 법무부 표창), 미니 데이비(Miss Minnie C. Davie: 1957, 법무부 표창), 헬렌 캠벨(Helen M. O. Campbell: 1958, 경북대학교 명예박사), 에드워드 아담스(Edward Adams: 1958, 문화훈장), 존 스미스(John C. Smith: 명예시민), 뵐켈(Harold Voelkel: 1950, 미국의 자유훈장; 1961, 복지훈장), 드캠프(E. O. DeCamp: 1960, 표창), Harry A. Rhodes & Archibald Campbell, Ibid., pp. 385-388.

87) 「미선교부 총무 뿌럼보박사 환영회성황」, 『감리회보』 12/6, 1952년 7월 호.

88) 이승만의 배재학교 시절 스승 격이었던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의 아들이다.

89) Harold E. Fey, “Korean President Seeks Aid,” *The Christian Century* (January 2, 1952), 6, 김홍수, 「해방 후 한국전쟁과 이승만 치하의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통권 제566호(대한기독교서회, 2006), 206-207에서 재인용.

와 정계에 이를 발표하도록 했다.⁹⁰⁾ 한국전쟁 시기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연합국의 “경찰행동”을 권고하고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⁹¹⁾ 이승만은 보다 ‘근본적인’ 개신교계를 지지했고 이는 당시 대부분의 한국개신교계도 그러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이승만은 국내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 등을 통해 한국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그것이 미국의 관심 속에 한국을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그는 보았을 것이다.⁹²⁾ 그것은 그의 신념과 현실정치의 긴밀한 결합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식민지 시기 초부터 한국전쟁 발발 기까지 나타난 이승만의 개신교적 사고와 활동을 다루었다. 이승만의 개인적 명성과 더불어 반소, 반공주의에 대한 집념은 마침내 그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앉혔다. 이승만은 20대 때 감옥에 있으면서 구상했던 개

90) 이에 대해서는 박정신, 「6·25전쟁과 한국기독교」,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249-250쪽;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426-427쪽.

91) 한국전쟁기 세계교회협의회 성명에 대해서는 김홍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한국전쟁 성명과 공산권 교회들」, 『한국근현대사연구』, 2003년 봄호, 제 24집, 215-217쪽 참조.

92) 한국전쟁 후 현실정치에서 이승만의 ‘북진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구호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다는 것과 더불어 개신교 문제도 중요한 소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Stephen Jin-woo Kim, *Master of Manipulation: Syngman Rhee and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1953-1960*(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특히 pp. 3-14참조.

신교 국가에 대한 비전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군정 하 3년 동안 개신교세력의 입지가 넓혀진 것도 건국 이후 개신교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에게서 개신교의 의미는 이전과는 연속되면서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구한말 문명개화의 핵심기제로서의 기독교라든가 식민지시기 그가 미국에서 목도한 정교분리를 기축으로 하는 미국식 개신교와는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반공적이면서 국가의 특혜를 받는 ‘국가적 개신교’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전후 서양문명의 핵심요소로서의 개신교가 쇠퇴하게 되면서 경제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잡한 현실이 도래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해방 후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이승만은 미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가까운 ‘특정한’ 형태의 개신교를 선택했던 것이다.

한국 개신교계는 이미 1950년대 중·후반 경 신자 150만을 확보했다. 해방 당시 불과 50만에도 미치지 못했던 개신교 신자수가 10여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은 국가에 의한 개신교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개신교계에 대한 ‘특혜’가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 시기만이 아니라 이후 1952년, 1956년, 1960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한국 개신교계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 동기였다.⁹³⁾ 이 과정에서 개신교계는 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국가와의 거리두기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한국 개신교계의 무제한에 가까운 지원은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부정선거에 불행히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관련되게 만들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개신교의 공신력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93) 개신교계의 선거지원에 대한 문제는 김홍수, 「해방 후 한국전쟁과 이승만 치하의 한국교회」, 208-210쪽.

의 친기독교, 친미정책은 후일까지 광범위하게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춘 한국의 주류 개신교의 속성은 정권보다 긴 수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감리회보』
Horace G. Underwood Papers,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 국가보훈처, 2005.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 Department of History,
Philadelphia, PA. Microform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U. S. State Department,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
1945-1949, NARA, Washington D. C., c. 1986. 9 & 12
Microfilm Rolls.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 1960』, 한국기독교역
사연구소, 1996.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1956.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유영익 편,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_____, 편, 『이승만연구-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승만, 『한국교회 펍박』, 美領夏哇伊: 新韓國報社, 1913.
- _____, 『몽치면 살고-1898~1904 언론인 이승만의 글 모음』, 조선일보사, 1995.
- _____, 『一民主義概述』, 일민주의보급회, 1949.
- Fisher, J. Ernest,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The Christian Society of Korea, 1977.
- Rhee,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The Challenge of Today*. New York etc.: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
- Underwood, Horace H., *Tragedy and Faith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투고일: 2009. 1. 8 심사일: 2009. 3. 3 게재확정일: 2009. 3. 7

〈Abstract〉

From Enlightenment to Anti-Communism: the
Relationship between Syngman Rhee and Christianity,
1912~1950

An, Jong-cho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Christianity. As it is well known, Syngman Rhee brought many lenient policies towards Christian groups during his presidency. This trend dates back to the pre-colonial period when he was sentenced to prison due to his activity in the Independence Club. While Rhee was in exile to the US from 1912 to 1945, he connected the destiny of Korean Christianity with that of Korea. Because of the Japanese propaganda and the U. S. policy toward East Asia,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shift US attention to Korea. Like Homer H. Hulbert, therefore, Syngman Rhee used a propaganda that Korea would be a Christian country without Japanese oppression.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with the latter's influence upon the former was well entrenched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Rhee's logic had somewhat support.

Because of his name value for struggle for independence, he became very prominent among average Koreans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eins. Under the USA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herefore,

^{*} HK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Christianity had great potential to influence Korean society so that the leaders such as Rhee, Kim Ku, and Kim Kyu-sik all had to extract support from Korean Christians. In that sense, at last, Rhee obtained Korean Christian support through his tough stance towards trusteeship issue and the US-USSR Joint Commission.

When Rhee became the first President, American missionaries and Korean Christians welcomed the cre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sponse to that, President Rhee proclaimed that the new government would fully support missionary activities. Among many special treatment, the state or social-level funerals for the deceased missionaries were very exemplary. The religious policy like this on the part of Rhee lasted longer than his presidency.

Key Words : Syngman Rhee, Christianity, Democracy, Hulbert, Underwood, American Missionary